

DGB금융 '시중금융지주' 전환 1개월

전국 영업점 확충 목표... 비은행 부문 수익성 개선 과제

지방금융 기존 이미지 탈피 주력
3년간 'iM뱅크' 영업점 14개 설치
비대면 특화로 점유율 확보 가속
부동산 PF부실 여파 수익성 악화
보험 등 포트폴리오 확대 관측도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DGB금융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시중금융지주로 재출범한 DGB금융이 전환 1개월을 맞았다.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옛 DGB대구은행)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 확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DGB금융의 향후 전략 및 당면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지난 5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iM뱅크' 재출범에 발맞춰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전 계열사의 브랜드명을 기존 'DGB'에서 'iM'로 일괄 교체하고 iM뱅크의 전국 단위 영업을 개시했다.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iM뱅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고객 유치 및 'iM'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수신(예금·적금 등을 통해 고객의 돈을 받는 영업 행위) 부문에서는 최고 연 4.15% 정기예금, 연 20% 초단기 적금 등 비대면 전용 상품을 앞세워 고객 유

치에 나섰다. 카드·연금·해외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서도 수수료 면제 등이벤트를 앞세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경북에 거점을 둔 지방금융'이란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별 거점 영업점 설치에 앞서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포석이다.

앞서 DGB금융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향후 3년간 14개의 iM뱅크 거점 영업점을 전국에 설치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관계형·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내·외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비대면 플랫폼 특화 상품에 집중하는 한편,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금융전문가제도(PRM)를 확대해 전국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의 일환이다.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뉴 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은 관계형 영업을 통해 점유율을 조금씩 가져오는 전략으로, 시중은행의 박리다매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DGB금융의 당면 과제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의 여파로 악화된 비은행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꼽힌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 대비 563억원(33.5%) 감소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비이자이익이 감소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DG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674억원(34.7%) 감소한 126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은 1104억원에서 481억원(43.6%) 늘어난 1585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DGB금융이 비은행 부

문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나 보험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DGB금융이 등록한 상표에 'iM 저축은행' 및 'iM손해보험' 등이 포함됐고, DGB금융이 기존에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만큼 영업 구역에 따른 저축은행 인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PF 여파로 저축은행권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만큼, DGB금융이 단기간 내에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DGB금융 관계자는 "iM뱅크가 최근 시중은행으로 재출범한 만큼 현재는 그룹 역량을 iM뱅크에 집중하고 있다"며 "iM저축은행, iM손해보험 등 상표명은 브랜드 선점 차원에서 등록한 것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인수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검토... 가격이 관건

"과도한 가격 지불 없다" 기본원칙
2조 웃돌면 유찰 가능성 배제 못해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인수 실사를 마치면서 본입찰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비은행 강화가 절실한 우리금융은 지분까지 이상의 오버페이(과다지급)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찰예상가는 1조5000억~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전략 부문사업 포트폴리오부는 지난주 롯데손보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본입찰 참여를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77%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자산(CSM)까지 더해 매각 희망가는 2조~3조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1조2300억원

대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검토에 나선 것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순영업수익 중 이자이익은 89%, 비이자이익은 11%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모색 중이다.

우리금융의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1분기 96%로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 130%와 비교하면 자회사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의 자본총계와 자회사 출자총액을 고려하면 최대 7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출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JKL파트너스가 2조원을 웃도는 매각가격을 제시할 경우 다수 인수 희망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본입찰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조~3조원에 육박하는 매각가는 부담되는 가격이다. 또한 매도자 측이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외국계 사모펀드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호황기도 아니고 롯데손보가 손보업계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격에 매각이 이뤄질 지 관심이 있다"라며 이어 "우리금융의 경우 1조9000억원까지 배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v2665@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

하나은행, 자체개발 기술 도입
오류 최소화, 업무 편의성 증대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는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자체 개발 AI 기술을 도입해 마련됐다.

AI 수출환 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는 정형화되지 않은 수출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매입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디지털로 빠르게 추출한다. 기존 수기 작성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

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나은행은 AI 수출환어음매입 전산 자동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리딧(READIT) v3.0'을 활용해 AI 기반의 수출 서류 심사 및 수출 서류 작성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수출업무 분야에 자체 기술을 적용한 금융권 첫 사례가 되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업무의 디지털화 확대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거래 편의를 위한 혁신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호건설, 대전서 2703억 규모 대단지 아파트 수주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420세대 공동주택 건설공사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 조감도.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기반시설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55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금호건설(주관사)이 DL이앤씨,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시공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은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어 주민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이 수주한 '대전대동2 주거환경 개선사업 1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공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

동 33번지, 용운동 일대에 지하 2층 ~ 최고 지상 35층, 19개동 총 14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다. 1블록은 1130세대로 단지 서쪽에 위치하고 2블록은 단지 동쪽에 209세대로 구성된다. 총 공사비는 2703억원으로 공사기간은 52개월이다.

1·2블록에 들어설 1420세대는 전체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돼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24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디지털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 후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왼쪽부터),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 정재호 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 디지털 전략 자문회 출범

NH농협은행은 급변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시장 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전략 자문위원회는 정재호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법률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원회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했다.

/이승용 기자